

초등학교 아동과 부모의 거짓행동 경험 및 태도 분석*

우 남 희** 이 은 정***

동덕여자대학교 아동학과

국 문 초 록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아동과 그들 부모의 거짓행동 경험 및 그에 대한 태도를 분석하고 아동의 거짓행동 경험과 상관이 있는 변인을 밝히고자 하였다. 서울에 위치한 한 초등학교로부터 각 학년 20명씩 120명을 선정하고, 개별 면접을 통하여 이들에게 자신의 거짓행동 경험과 태도, 그리고 그들이 인지한 부모의 태도를 물었다. 한편, 그들의 부모들에게는 설문지를 통하여 부모 자신들의 거짓행동 경험과 태도, 그리고 자녀의 거짓행동에 대한 태도를 질문하였다. 아동 면접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거짓행동에 관한 에피소드를 그린 그림카드 7장과 체크리스트를 준비하였다. 에피소드는 Morgan(1937)의 거짓행동 분류 7유형에 해당하는 내용 7가지를 선정하였다. 7가지 유형은 의도별로는 1)유희적, 2)혼란으로 인한, 3)충성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등 친사회적인 거짓행동이 3가지, 4)허영, 5)보복, 6)변명, 7)자신의 이익을 위한 반사회적인 거짓행동 4가지였다. 연구결과, 연구대상 아동들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거짓행동을 더욱 많이 하였으며, 거짓행동에 대해서는 점점 더 허용적인 태도를 취하였다. 의도에 따라서는, 친사회적인 거짓행동을 반사회적인 거짓행동보다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짓행동에 대하여 아동이 인지한 부모의 태도도 거짓행동의 의도에 따라 달라, 아동은 반사회적 거짓행동보다 친사회적 거짓행동에 대해서 부모의 허용도가 높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부모들의 직접 응답에서도 거짓행동에 대한 태도가 의도에 따라 달랐으며, 아동의 유희적인 거짓행동에 대하여 가장 관대하였고, 자기 이익을 위한 거짓행동에 대하여 가장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였다. 아동의 거짓행동의 경험은 아동 자신의 거짓행동에 대한 평가와 허용 정도, 그리고 아동이 인지한 부모의 태도와 상관관계가 있었다. 그러나 부모 자신의 거짓행동 경험이나 거짓행동에 대한 태도는 아동의 거짓행동 경험과 직접적인 상관이 나타나지 않았다.

주요어: 거짓행동, 반사회적 행동, 거짓말

* 본 연구는 두뇌한국 21(BK21) 아동교육·연구단의 학술 연구지원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동덕여자대학교 생활과학부 아동학과 교수

*** 동덕여자대학교 BK21 아동교육·연구단 연구원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사회는 과학의 발전과 정보의 범람으로 말미암아 날이 갈수록 복잡해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그 사회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 간의 관계도 더욱 복잡하여지고 있다. 이러한 사회 속에서 인간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하고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 우리는 서로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요즘 우리사회는 경제적 침체와 더불어 신용불량자가 올해 2월 현재 380여만명에 이를 정도로 사람을 신뢰하기가 어려운 사회가 되었다(동아일보, 2004. 3. 25.). 그뿐 아니라 한국인의 위증 사례가 일본의 수 백 배에 달한다는 보도가 있을 정도로 우리 사회의 진실성은 위협을 받고 있다(연합뉴스, 2002. 8. 6). 특히, 우리사회에서는 성인들의 거짓은 물론 어린 아동들까지 거짓행동과 부정행위를 하여 거짓이 만연한 사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 이에 따른 대책이 시급하다(우남희, 2001). 최근의 한 연구에 따르면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거짓말과 학업부정행위에 대해 조사한 결과, 초등학교 1학년생도 학업부정행위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우남희, 2001).

이러한 불신과 거짓이 만연해 있는 사회 속에서 어린 아동들이 올바르게 자랄 것을 기대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물론 어떠한 나라나 사회도 완전히 거짓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지만, 특히 우리나라는 국제 사회에서도 신용이 흔들리고 있으므로 하루 빨리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 올바른 사회를 이룩하여야 할 것이다.

Kant나 Augustine과 같은 철학자들은 인간 사회에서 거짓이 얼마나 정당화될 수 있는지를 논할 때 어떠한 종류의 거짓행동도 해서는 안 되며 정당화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들은 비록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하기 위하여서라 할지라도 거짓은 정당화될 수 없으므로 사람은 반드시 정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Bussey, 1999, 재인용).

그러나 Ekman(1985)은 거짓이란 다른 사람이 잘못 판단하도록 의도적으로 유도하는 것이라고 보고

거짓행동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해도 괜찮은 거짓행동과 해서는 안 되는 거짓행동으로 분류하였다. 해도 괜찮은 거짓행동은 다른 사람에게 이익을 주거나 도움이 되는 행동과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거짓행동이고, 반면에 해서는 안 되는 거짓행동은 자기 실속만을 차리기 위한 이기적인 거짓행동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주기 위한 거짓행동이다.

이와 같이 Piaget의 연구 이전에는 아동의 거짓말이나 거짓행동이 주로 윤리 도덕적 측면에서 다루어졌다. 그러나 Piaget는 인지발달적 측면에서 도덕적 이해와 판단에 기반을 두고 과학적인 연구를 시작하였으며, 이후 1980년대 초기부터 거짓행동은 발달심리학자들로부터 보다 많은 관심을 얻게 되었다(Bussey, 1992; Peterson, 1995; Peterson, Peterson, & Seeto, 1983; Stricharts & Burton, 1990; Wimmer, Gruber, & Perner, 1984). Piaget(1965)는 거짓행동을 고의로 진리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으며, 이러한 정의를 바탕으로 6세부터 12세까지의 아동들의 거짓행동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기 위한 실험 연구를 하였다. 연구 결과, 아직 행동의 의도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6~7세 아동은 실수나 과장을 거짓행위처럼 보거나 오히려 더 나쁘게 평가하였고, 거짓말을 욕설이나 상스러운 표현들과 동일시하여 나쁜 것으로 인식하였다. 반면에 8세부터 11~12세의 아동은 거짓말을 의도적으로 하는 거짓 진술이라고 보아 실수나 과장보다는 속이려는 의도가 있는 거짓행동을 더 나쁜 것으로 평가하였다. 거짓행동을 의도 중심으로 살펴보았을 때 6세와 10세 사이의 아동은 거짓말을 진실이 아닌 것 그리고 의도적이고 비의도적인 것 간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여겼으며, 10세 혹은 11세 사이의 아동들은 오직 의도적인 거짓 진술을 거짓말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연구를 바탕으로 그는 아동의 도덕적 판단의 발달에서 거짓행동에 대한 판단을 3단계로 분석하였다. 첫 단계는 약 4세부터 7세까지 도덕적 실태론의 시기로서 아동들은 거짓행동을 주로 결과

에 의존하여 판단한다고 하였다. 다음단계는 8세에서부터 10세까지의 아동들로 도덕적 주관주의에 의하여 판단하는 시기이다. 이들은 거짓행동을 판단할 때 의도를 고려하기 시작하여 이전과는 질적으로 다른 방식으로 도덕적 판단을 하게 된다고 하였다. 다음 단계는 11세 이후로 여러 가지의 의도를 함께 고려하여 거짓행동을 판단하는 시기이다.

최근 연구자들은 Piaget의 연구가 거짓에 대한 아동의 정의와 평가에서 의도의 역할만을 강조하였으며 사회문화적인 차이를 배제하였다고 비판하였고(Lee, Cameron, Xu, Fu, & Board, 1997; Bussey, 2000), 아동이 10세가 되어야만 의도를 고려할 수 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하여 반론을 제기하고 있다(Peterson, 1995; Peterson, Peterson, & Seeto, 1983; Wimmer, Gruber, & Perner, 1984). 5~11세 아동과 성인을 대상으로 한 Peterson 등(1983)의 연구에서는 모든 연령에서 이타적인 거짓행동이나 농담과 같은 거짓행동보다 처벌을 회피하기 위한 거짓행동을 더 부정적으로 평가한다는 결과를 나타내어 8세 이하의 아동은 거짓행동에 대한 의도를 고려하여 평가하지 못한다는 Piaget의 주장을 부정하였다.

한편, Bussey(1999)는 도덕적 강도에 따라 거짓행동의 유형을 반사회적인 거짓행동(antisocial lies), 선의의 거짓행동(a white lie), 유괴의 거짓행동(trick lies)으로 분류하였다. 그는 이러한 분류를 바탕으로 4, 8, 11세 아동 총 72명에게 여러 유형의 거짓행동에 대하여 평가하도록 하였다. 이 연구에서 모든 연령의 아동들은 반사회적인 거짓행동에 대하여 가장 부정적으로 평가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유괴의 거짓행동, 선의의 거짓행동 순으로 부정적인 평가를 하였다. 4세 아동보다 8세와 11세 아동은 3가지 거짓 중 반사회적 거짓행동과 유괴의 거짓행동에서 자신이 거짓을 말하는 것에 대하여 더 자기 부인적 태도를 보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어린 아동들도 거짓행동을 유형에 따라 다르게 평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선의의 거짓행동은 사회적으로 허용되

고 있고 많이 발생하므로 아동들도 그러한 영향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연구를 바탕으로 한 우리나라의 한 연구(이근옥, 2000)에서는 5세와 7세 아동 각 20명씩 총 40명을 대상으로 하여 반사회적 거짓말, 선의의 거짓말, 유괴적 거짓말에 대하여 아동의 도덕적 판단과 정서적 평가 능력에 관한 것을 알아보았다. 그 결과, 이 연구에서도 모든 연령의 아동들이 반사회적 거짓말을 가장 나쁘다고 하였으며 그 다음이 유괴적 거짓말, 선의의 거짓말 순으로 판단하고 있었다.

Lee와 그의 동료들(Lee, Cameron, Xu, Fu, & Board, 1997)은 거짓행동을 의도에 따라 친사회적 거짓행동과 반사회적인 거짓행동으로 나누고 아동들의 평가가 의도에 따라 달라지는지를 분석하기 위하여 사회문화적 접근을 하였다. 그들에 의하면 중국아동은 악의가 없거나 타인을 도우려는 행동을 포함하는 친사회적인 의도를 가진 거짓행동에 대하여 캐나다의 아동보다 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였다고 한다. 이는 문화에 따라 거짓행동에 대한 평가가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Sweeter, 1987).

거짓말이나 거짓행동에 대한 우리나라의 기준이 다른 문화에서의 기준과는 상당히 다를 수 있다. 예를 들어, 조선시대의 행동강령이라고 할 수 있는 논어에서는 비록 사람이 살아가는 이치에 있어서 정직이 근본(生理本直)이라고는 하나(論語, 제6편 雍也, 十七장), 효를 위하여 하는 거짓행동은 옳은 것(論語, 제3편 子路, 十八장)이라고 하였다(차주환, 1998). 이와 같이 효를 인간이 갖추어야 할 가장 기본 덕목으로 여기던 조선시대의 문화 속에서는 효를 행하기 위한 것이라면 거짓행동도 허용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므로 이러한 전통적 교육 지침은 현대에도 우리나라 사람들의 사고에 영향을 미쳐 우리 사회에서는 전반적으로 거짓행동에 대해 상당히 수용적인 태도를 보일 것이라고 생각된다.

Morgan(1937)은 거짓행동을 하게 되는 상황에 따

라 거짓행동을 7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그의 분류에 따르면, 첫째, 놀이의 맥락에서 나타나는 유희적인 거짓말(playful lie), 둘째, 어떠한 사건을 정확하게 보고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일어나는 혼란으로 인한 거짓말(lie of confusion), 셋째, 타인에게 잘 보이기 위한 허영적인 거짓말(lie of vanity), 넷째, 악의나 보복을 위한 거짓말(lie of malevolence or revenge), 다섯째, 변명을 위한 거짓말(excursive lie), 여섯째, 욕심나는 것을 얻기 위한 이기적인 거짓말(selfish lie), 일곱째, 충실함에서 나온 거짓이나 상투적으로 하는 거짓말(loyal or conventional lie)이다. 이는 거짓행동을 하게 되는 의도를 세부적으로 나눈 것으로서 유희적 거짓행동, 혼란으로 인한 거짓행동, 충실함을 보이거나 상투적으로 하는 거짓행동은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용인되는 친사회적인 것으로 여겨지며 허영적인 거짓행동, 악의나 보복을 위한 거짓행동, 변명의 거짓행동, 이기적인 거짓행동은 일상적으로 해서는 안 되는 의도가 좋지 않은 반사회적인 거짓행동이라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의도에 따라 거짓행동을 구분하는 것은 여러 학자들에 의해 관심을 받아왔다(Bussey, 1999; Ekman, 1989)

본 연구에서는 아동이 거짓행동을 하는 원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Morgan의 거짓행동 유형 7가지를 기초로 하여 한국의 아동들의 거짓행동 유형을 분석하고 이러한 거짓행동에 대해 아동 자신과 부모가 어떻게 평가하고 그러한 평가나 태도가 아동의 거짓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는 일차적 양육담당자로서 아동이 법과 규범을 내면화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므로(Schaffer, 1996), 부모의 신념은 자녀의 사회적 능력, 성취, 공격성 등과 같은 행동 발달에 결정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Goodnow, 1988). 따라서 부모의 태도는 아동의 거짓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다.

Buller와 그의 동료들(Buller, Comstock, Aune, &

Strzyzewski, 1989)의 연구에서는 피험자들로 하여금 사회적 바람직성 척도에 대하여 진실 혹은 거짓되게 응답하도록 한 후, 자신의 응답이 솔직한 것이었음을 면접자들에게 확신시키라고 지시하였다. 이 연구에서 청자와 화자의 관계가 친밀한 정도에 따라 거짓을 탐지할 확률이 달라짐을 보여 주었다. 따라서 부모들은 아동과 가장 친밀한 관계라고 볼 수 있으며 아동의 거짓행동에 대하여 가장 잘 탐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한편, Piaget(1932/1965)는 아동의 거짓행동에 대한 인지적 평가가 부모의 태도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여겼다. 특히 자기중심적인 사고를 하고 있는 아동에게 부모가 훈계와 처벌을 통하여 거짓행동의 부당성을 가르치는 것은 아동으로 하여금 거짓행동을 해서는 안 되는 것, 벌을 받는 것으로 인식하게 하지만 거짓행동을 해서는 안 되는 이유에 대한 사고를 돕지는 못한다고 보았다. 또한 Ekman(1989)에 의하면 7~8세 까지의 아동들이 거짓행동을 하였을 때 부모들은 금방 알아차릴 가능성이 모르고 지나칠 가능성보다 더 높으나, 10~11세 정도의 아동은 부모에게 성공적으로 거짓행동을 할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들은 아동의 연령이나 아동과 친밀한 부모들이 아동의 거짓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국내에서 이루어진 거짓행동에 관한 연구는 아동의 거짓행동에 대한 개념발달이나 거짓행동 경험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강봉희, 1999; 김동복, 1991; 김신옥, 1987; 김희주, 1988), 거짓말의 특징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그것을 탐지하는 방법에 관한 연구(조은경, 2002), 아동들의 선의의 거짓말에 대한 이해와 이를 이용한 대인간 갈등 해결 방법에 관한 연구들(김경희, 1999; 김경희, 2000a; 김경희, 2000b)이 있다. 또한 거짓행동에 대한 부모의 태도를 알아본 연구는 어머니의 언어통제방식이 아동의 거짓말에 미치는 영향이나 거짓행동에 대한 부모의 평가와 반응에 대한 연구들(권향숙, 1989; 우남희, 2001;

이은정, 우남희, 2002)이 있다. 그러나 아동이 거짓 행동에 대하여 실제로 경험하고 평가한 것과 이 거짓 행동에 대한 부모의 태도가 상관이 있는지와 아동의 거짓 행동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는 드물다. 따라서 본 연구는 아동이 어떠한 유형의 거짓 행동을 경험하고 있는지, 그러한 거짓 행동 경험을 아동 자신이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분석하고 그에 대한 부모의 태도는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부모 자신들이 실생활에서 어느 정도 거짓 행동을 경험하고 있으며 그에 대하여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거짓 행동과 부모의 태도를 함께 분석하여 서로 상관이 있는지를 분석하며 부모의 태도가 아동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본 연구에서 제시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아동의 거짓 행동 경험은 학년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2. 거짓 행동에 대한 평가는 학년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3. 거짓 행동에 대한 허용도는 아동의 학년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4.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태도는 아동의 학년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5. 거짓 행동에 대한 부모의 태도는 자녀의 학년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6. 부모의 거짓 행동 경험은 자녀의 학년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7. 아동의 거짓 행동 경험과 평가는 부모의 거짓 행동 경험과 태도와 상관이 있는가?
8. 아동의 거짓 행동 경험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무엇인가?

방 법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의 아동 120명과 그들의 부모들이다. 연구를 위하여 서울시내의 한 초등학교에 각 학년에서 한 반씩을 선정하여 담임선생님께 성적이나 품행이 편중되지 않도록 남녀 각 10명씩을 무작위로 보내줄 것을 부탁드려 각 학년당 20명씩 총 120명의 아동이 선정되었다. 각 학년당 평균 연령은 1학년이 7세 3개월, 2학년 8세 1개월, 3학년 9세 1개월, 4학년 10세 3개월, 5학년 11세 1개월, 6학년 12세 1개월이었다. 또한 부모 설문지에 대한 자료 조사를 위하여 그들의 부모에게 설문지를 배포하였으며 총 110부의 설문지를 회수하였다. 회수된 설문지를 분석한 결과, 설문지 작성자가 아동의 아버지인 경우가 17부, 어머니인 경우가 90부, 조모 등 그 외가 3부였다.

측정 도구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아동의 거짓 행동 경험, 그러한 행동에 대한 자신들의 평가, 아동이 인식한 부모들의 태도 등을 측정하기 위하여 아동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하였으며 면접을 위한 면접지를 마련하였다. 한편, 거짓 행동에 대한 부모의 태도와 경험을 알아보기 위하여서는 부모용 질문지를 마련하였다.

1) 아동 면접지

아동의 거짓 행동 경험과 그에 대한 아동 자신의 평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거짓 행동이 그려져 있는 그림카드를 준비하였으며 이 그림카드를 바탕으로 한 질문에 대한 반응을 체크리스트에 기록하였다.

(1) 그림카드

아동의 거짓 행동에 관한 면담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고 아동으로부터 좀 더 구체적인 응답을 도출해

내기 위하여 우리 주위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거짓행동 상황을 그림으로 그려서 아동에게 제시하였다. 그림카드는 총 7장으로 A4 크기의 용지에 선에 의한 흑백그림으로 한 가지씩의 거짓행동 에피소드를 그렸다. 그림카드에 제시한 에피소드는 우남희(2001)가 초등학교 아동의 거짓행동을 분석하기 위하여 Lee 등(1997)의 연구를 기초로 구성한 에피소드 10가지 중에서 Morgan(1937)이 제시한 거짓행동의 7가지 유형에 적합한 에피소드 7가지를 선택하여 수정·보완하였다. Morgan이 제시한 거짓행동 유형은 유희적인 거짓행동, 혼란으로 인한 거짓행동, 허영적인 거짓행동, 악의나 보복의 거짓행동, 변명을 위한 거짓행동, 이기적인 거짓행동, 충실함에서 나온 거짓행동이나 상투적인 거짓행동의 7가지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7가지 에피소드는 각 에피소드가 Morgan의 7가지 거짓행동 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아동학 전공 교수 3인에게 내용타당도를 검증받았다.

<표 1> 거짓행동 7가지 유형에 대한 에피소드

No.	유형	에 피 소 드
1	유희	가게 놀이시 종이돈 사용
2	혼란	동생을 데리고 놀아준 횡수를 기억하지 못해 틀리게 말함
3	허영	화분을 깨뜨리고 친구들 앞에서는 깨어진 화분을 청소하는 척함
4	보복	형(언니)이 함께 놀아주지 않자 엄마에게 형(언니)이 때렸다고 함
5	변명	오락실에서 놀다가 집에 늦었는데 학교에서 늦게 끝났다고 함
6	자기 이익	시험시 남의 답안지를 몰래 보고 씀
7	충실성	엄마가 해주신 맛있는 음식을 맛있다고 함

한편, 거짓행동의 의도에 따라 거짓행동에 대한 아동의 평가와 태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에피소드 7가지를 친사회적인 거짓행동과 반사회적인 거짓행동으로도 나누어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친사회적 거짓행동이란 타인을 속이는 것이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거나 타인의 기분을 상하지 않게 하려는 좋은 의도에서 나온 행동을 가리킨다. 반면에 반사회적인 거짓행동은 분명하게 타인을 속이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으며 직·간접적으로 타인에게 피해를 주게 되는 나쁜 의도의 거짓행동이다. 따라서 친사회적 거짓행동은 유희적인 거짓행동, 혼란으로 인한 거짓행동, 충실함을 나타내거나 상투적인 거짓행동으로서 에피소드 1, 2, 7번에 해당하며, 반사회적인 거짓행동은 허영적인 거짓행동, 악의나 보복의 거짓행동, 변명을 위한 거짓행동, 이기적인 거짓행동으로 에피소드 3, 4, 5, 6번이 이에 해당한다.

(2) 체크리스트

그림카드와 함께 체크리스트를 준비하여 아동이 에피소드에 나타난 거짓행동과 유사한 거짓행동을 경험한 적이 있는지, 그러한 거짓행동을 아동이 어떻게 평가하는지, 그리고 그러한 행동을 했을 경우 부모가 어떠한 태도를 보이셨을 것이라고 생각하는지에 관한 반응을 기록하였다. 아동들이 거짓행동을 한 횟수를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였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거짓행동 경험에 대한 아동의 응답을 ‘경험한 적이 없다’, ‘한두 번 정도 있다’, ‘서너번 정도 있다’, ‘다섯 번 이상 있다’로 분류하여 각 0, 1, 3, 5점을 주었다. 또한 이러한 거짓행동에 대한 아동의 평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가치평가와 허용도로 나누어 질문을 하였는데, 가치평가는 Likert 척도를 사용하여 ‘아주 아주 나쁘다’, ‘나쁘다’, ‘좋다’, ‘아주 아주 좋다’로 응답하도록 하였고 허용도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해서는 안 된다’, ‘해도 된다’, ‘아주 아주 해도 된다’로 나누어 각각 1점부터 4점까지의 점수를 주었다. 아동이 지각한 부모들의 태도를 알아보기 위하여서는 아동에게 부모가 자신이 한 거짓행동을 알았을 때 어떻게 평가할 것이라고 생각하는지를 물어보았고 이에 대하여 ‘아주 아주 나쁘다’, ‘나쁘다’, ‘괜찮다’, ‘아주 아주 괜찮다’라고 한

다로 나누어 4점 척도에 의하여 점수화하였다.

2) 부모 질문지

본 연구에서는 자녀가 거짓행동을 한 사실을 알았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부모의 태도를 알아보고 일상생활 속에서 부모들이 어떠한 거짓행동을 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부모용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질문지는 아동들에게 제시한 7가지 에피소드의 거짓행동에 대한 부모의 태도에 대한 질문 7문항과 부모 자신들이 일상생활에서 행하고 있는 거짓행동에 관한 질문 5문항으로 이루어졌다.

자녀들이 에피소드에서 제시한 행동과 유사한 거짓행동을 한다면 부모님은 어떻게 생각하겠느냐를 질문하여 부모의 반응을 ‘아주 아주 나쁘다’, ‘나쁘다’, ‘좋다’, ‘아주 아주 좋다’의 4점 척도로 점수화하였다.

부모들이 자녀들과 함께 있는 일상적인 상황에서 행하는 거짓행동에 대한 경험을 알아보기 위하여 다섯 가지 상황을 제시하였다. 제시된 일상적 거짓행동의 다섯 가지는 1) 자녀에게 어떠한 물건을 사준다고 해 놓고 사주지 않은 적이 있는지, 2) 자녀에게 벌을 준다고 하고 벌을 주지 않은 적이 있는지, 3) 전화가 걸려왔을 때 자녀에게 부모님 안 계신다고 말하도록 한 적이 있는지, 4) 부모랑 어디 갔다 온 것을 다른 사람에게는 말하지 말라고 한 적이 있는지, 5) 자녀와 물건을 산 후 다른 식구들에게는 말하지 말라고 한 적이 있는지에 관한 것이었다. 이에 대한 부모들의 경험은 ‘전혀 하지 않았다’, ‘거의 하지 않았다’, ‘다소 한 적이 있다’, ‘매우 많이 하였다’로 응답하도록 하여 1~4점으로 점수화하였다.

절 차

1) 예비조사

2001년 9월, 서울에 거주하며 초등학교에 재학 중

인 1, 3, 5학년 각 4명, 총 12명의 아동과 초등학생 자녀를 둔 아동학 교수 2인과 대학원 박사과정생 4인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선정된 거짓행동 에피소드가 초등학교 아동들에게 흔히 일어날 수 있는지, 그리고 각 에피소드들이 Morgan의 거짓행동 유형별로 적합한 것인지와 부모용 설문지의 내용이 적합한 것인지를 알아보았다. 그 결과, 허영의 거짓행동에 관한 에피소드와 충실함을 나타내기 위한 거짓행동이나 상투적인 거짓행동에 관한 에피소드가 적절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므로 두 가지를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2) 본조사

본 연구를 위하여 선정된 120명의 아동을 대상으로 2001년 10월 중순 2주 동안 초등학교의 조용한 교사 휴게실에서 개별 면담을 실시하였다. 그림카드와 체크리스트를 포함한 아동용 면접지를 가지고 아동에게 그림카드에 제시된 거짓행동과 유사한 행동을 한 적이 있는지, 그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에 대한 부모의 태도는 어떠한지를 물어보았다. 담임교사가 보내주는 순서에 따라 대학원생 5명이 120명의 아동을 차례로 나누어 면접을 실시하였다. 면접은 아동이 솔직하게 응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교사 휴게실 내에서 가능한 한 서로 멀리 떨어져 개별적으로 실시하였으며 각 아동에게 소요된 면접시간은 20분~25분이었다.

아동 면접과 병행하여 이주일 동안 담임선생님을 통해 학부모들에게 가정 통신문 형식으로 질문지를 배부·회수하였다.

3) 자료분석

거짓행동에 대한 아동의 경험, 평가, 아동이 인지한 부모의 태도에 있어서 학년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각각의 평균 점수를 산출하여 일원변량분석(ANOVA)을 실시한 후 Tukey사후검정으로 분석하였다. 의도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측정하기 위하여 T검증을 실시하였다. 자녀의 거짓 행동에 대한 부모의 태도의 학년간 차이, 일상적 거짓 행동에 대한 부모의 경험의 차이 등을 분석하기 위하여서는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한편, 아동의 거짓행동 경험, 평가, 부모의 태도, 부모 자신의 거짓경험 등이 서로 상관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서는 Pearson 적률상관계수를 사용하였고, 어떠한 요인이 아동의 거짓행동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지를 알아보기 위하여서는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자료는 SPSS 10.0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되었다.

결 과

1. 거짓행동에 대한 아동의 경험

1) 거짓행동의 유형에 따른 아동의 거짓행동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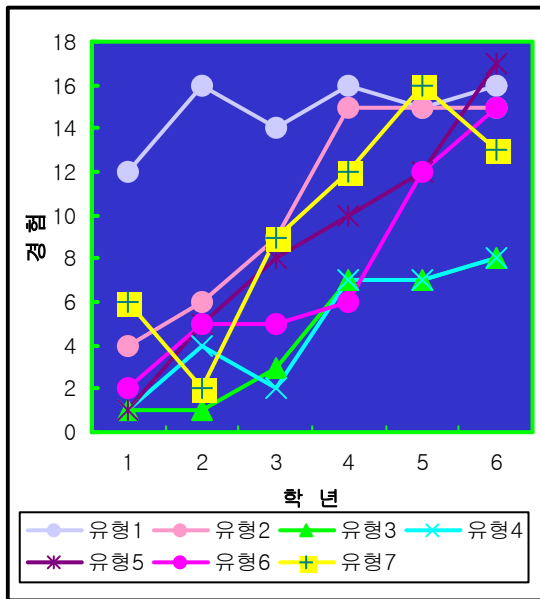
아동의 거짓행동 경험이 거짓행동의 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아동에게 7가지 유형의 거짓행동 에피소드를 보여주고 이에 대한 아동의 경험여부를 물어보았다. 가, 부모 대담한 아동의 응답을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여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2>과 같으며 이를 그래프로 제시한 것은 그림 1과 같다.

<표 2>에서와 같이 거짓행동의 경험을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가장 많은 수의 아동들이 경험했던 거짓행동 유형은 가상놀이에서 나타나는 유희적인 거짓행동으로서 전체 아동의 74%가 이러한 유형의 거짓행동을 해본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은 혼란으로 인한 거짓행동이었으며(53%), 그 다음은 충실함에서 나온 거짓말이나 상투적인 거짓행동이었다(48%). 학년별로는 아동들이 경험하는 거짓행동의 유형이 조금씩 차이가 있었는데, 1학년부터 4학년까지는 모두 위와 같은 순서로 거짓행동을 경험하였으나, 5학년 부터는 조금 다른 양상을 보였다. 5학년은 유희적인

거짓행동(75%)보다 충실함에서 나온 거짓말이나 상투적인 거짓행동을 더 많이 하였고(80%), 6학년은 변명을 위한 거짓행동을 가장 많이 하였다(85%). 전체적인 거짓행동의 경험 비율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증가하였다.

<표 2> 아동의 거짓행동 유형별 경험

학년 유형	빈도 (%)					
	1 (N=20)	2 (N=20)	3 (N=20)	4 (N=20)	5 (N=20)	6 (N=120)
유희	12 (60.00)	16 (80.00)	14 (70.00)	16 (80.00)	15 (75.00)	89 (74.00)
혼란	4 (20.00)	6 (30.00)	9 (45.00)	15 (75.00)	15 (75.00)	64 (53.00)
허영	1 (5.00)	1 (5.00)	3 (15.00)	7 (35.00)	7 (35.00)	27 (23.00)
보복	1 (5.00)	4 (20.00)	2 (10.00)	7 (35.00)	7 (35.00)	29 (24.00)
변명	1 (5.00)	5 (25.00)	8 (40.00)	10 (50.00)	12 (60.00)	53 (44.00)
자기 이익	2 (10.00)	5 (25.00)	5 (25.00)	6 (30.00)	12 (60.00)	45 (38.00)
충실 성	6 (30.00)	2 (10.00)	9 (45.00)	12 (60.00)	16 (80.00)	58 (48.00)
계	27 (19.00)	39 (28.00)	50 (36.00)	73 (52.00)	84 (60.00)	365 (43.00)



<그림 1> 거짓행동 유형별 경험의 차이

2) 학년에 따른 아동의 거짓행동 분석

학년에 따른 아동의 거짓행동 경험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인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거짓행동을 한 횟수를 분석하였다. 아동의 기억의 한계로 인하여 거짓행동 경험의 정확한 횟수를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하였으나, 거짓행동을 한두 번 정도 했다고 기억할 경우는 한번으로 1점을 주었고, 서너 번은 세 번으로 3점, 다섯 번 이상은 다섯 번으로 5점을 주어 분석하였다. 점수화한 반응이 학년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ANOVA 분석을 하였다.

전반적인 거짓행동에 대한 아동의 경험은 학년에 따라 증가하였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F(5, 114)=8.99, p<.001$). Tukey 사후검증 결과는 1학년보다는 4, 5, 6학년들이 거짓행동을 더 많이 하였고 2학년과 3학년보다는 5, 6학년들이 거짓행동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짓행동의 유형별로 보면, 유희적인 거짓행동에서만 학년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표 3 참조).

<표 3> 학년에 따른 아동의 거짓행동 경험

학년	1	2	3	4	5	6	계	
유형	M (SD)	M (SD)	M (SD)	M (SD)	M (SD)	M (SD)	M (SD)	F
유희	2.20 (2.09)	2.40 (1.79)	2.30 (2.00)	2.80 (1.77)	3.05 (2.21)	2.70 (1.81)	2.57 (1.94)	.57
혼란	.50 (1.10)	.70 (1.52)	1.05 (1.50)	2.45 (1.70)	2.15 (1.63)	2.65 (1.87)	1.58 (1.77)	7.19***
허영	.15 (.67)	.15 (.67)	.25 (.72)	.85 (1.46)	1.15 (1.90)	1.20 (1.64)	.63 (1.34)	3.24*
보복	.05 (.22)	.40 (.94)	.20 (.70)	.95 (1.54)	.95 (1.54)	1.00 (1.65)	.59 (1.25)	2.45*
변명	.05 (.22)	.75 (1.48)	1.10 (1.71)	1.60 (1.93)	2.10 (2.10)	2.55 (2.04)	1.36 (1.87)	5.74***
자기 이익	.20 (.70)	.55 (1.28)	.35 (.75)	.70 (1.38)	1.50 (1.57)	1.55 (1.57)	.81 (1.34)	4.25**
충실성	.50 (.95)	.30 (.92)	1.35 (1.66)	1.70 (1.75)	2.70 (1.92)	2.05 (1.85)	1.43 (1.75)	6.89***
계	.52 (.47)	.75 (.55)	.94 (.58)	1.57 (.85)	1.94 (.89)	1.96 (1.06)	1.28 (.94)	13.43***

* $p<.05$, ** $p<.01$, ***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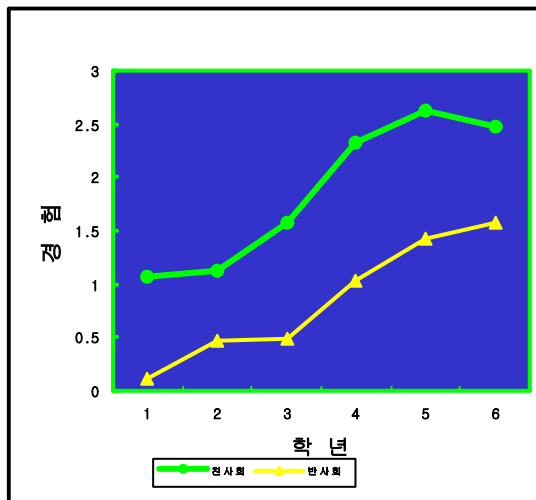
3) 의도에 따른 아동의 거짓행동 분석

각 학년의 아동의 거짓행동 경험이 의도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친사회적인 행동과 반사회적인 행동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 <표 4>와 같으며 이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그림 2>와 같다.

<표 4> 의도에 따른 아동의 거짓행동 경험

의도 학년	친사회	F	반사회	F
1	1.07(1.00)		.11(.25)	
2	1.13(.93)		.46(.64)	
3	1.57(.94)		.48(.62)	
4	2.32(1.05)	8.92***	1.03(1.02)	9.44***
5	2.63(1.18)		1.43(1.21)	
6	2.47(1.28)		1.58(1.30)	
계	1.86(1.23)		.85(1.05)	
t		5.52***		

*** $p<.001$



<그림 2> 의도에 따른 아동의 거짓행동 경험

이 분석에 의하면, 모든 학년의 아동들은 반사회적인 거짓행동보다 친사회적인 거짓행동을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t=5.52, p<.001(d=119)$). 그러나 두 가지 유형에서 모두 학년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친사회적

거짓행동($F(5, 114)=8.92, p<.001$)뿐 아니라 반사회적 거짓행동($F(5, 114)=9.44, p<.001$)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Tukey 검증에서는 친사회적 거짓행동은 1, 2학년보다 4, 5, 6학년 아동들이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사회적 거짓행동에서는 1학년 보다는 2, 3학년이, 2, 3학년 보다는 4, 5, 6학년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거짓행동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거짓행동에 대한 아동의 평가

1) 거짓행동의 유형에 따른 아동의 평가

거짓행동에 대하여 아동이 그러한 행동을 좋다고 보는지 나쁘다고 보는지를 물었으며, 각 유형별 거짓행동에 대하여 ‘아주 아주 나쁘다’라는 반응을 1점으로, ‘아주 아주 좋다’라는 반응을 4점으로 처리하였으며 분석한 결과는 다음 <표 5>와 같다.

<표 5> 거짓행동에 대한 아동의 평가(유형별)

학년 \ 유형	1 M (SD)	2 M (SD)	3 M (SD)	4 M (SD)	5 M (SD)	6 M (SD)	계 M (SD)	순서	F
유회	3.05 (.51)	3.30 (.57)	3.20 (.52)	2.95 (.39)	2.90 (.55)	3.15 (.37)	3.09 (.50)	1	1.93
혼란	2.50 (.89)	2.35 (.81)	2.60 (.60)	2.60 (.50)	2.55 (.51)	2.60 (.60)	2.53 (.66)	2	.43
허영	1.40 (.50)	1.35 (.49)	1.50 (.61)	1.65 (.49)	1.30 (.73)	1.70 (.66)	1.48 (.59)	4	1.55
보복	1.45 (.51)	1.25 (.44)	1.30 (.47)	1.65 (.75)	1.40 (.50)	1.40 (.50)	1.41 (.54)	6	1.34
변명	1.20 (.41)	1.40 (.50)	1.25 (.44)	1.65 (.59)	1.45 (.51)	1.75 (.55)	1.45 (.53)	5	3.70**
자기 이익	1.25 (.44)	1.20 (.41)	1.20 (.41)	1.30 (.47)	1.30 (.47)	1.45 (.76)	1.28 (.51)	7	.67
충실성	2.40 (.94)	2.10 (.91)	2.55 (.83)	2.80 (.62)	2.80 (.41)	2.80 (.77)	2.58 (.80)	3	2.78*
계	1.89 (.28)	1.85 (.26)	1.94 (.25)	2.08 (.24)	1.95 (.24)	2.12 (.35)	1.97 (.29)		3.06*

* $p<.05$, ** $p<.01$

거짓행동에 대한 아동들의 전반적인 생각은 평균 1.97($SD=.29$)로서 대체로 부정적이었다. 그러나 놀이에 의한 거짓($M=3.09, SD=.50$)이나 혼란에 의한 거짓($M=2.53, SD=.66$), 그리고 충실함에서 나온 거짓($M=2.58, SD=.80$)에 대해서는 평균이 2.5이상으로 상당히 긍정적이었다. 이러한 거짓행동에 대한 평가는 아동의 학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F(5, 114)=3.06, p<.05$), 전체적으로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아동들은 거짓행동에 대하여 비교적 관대한 평가를 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유형별로는 변명을 위한 거짓행동($F(5, 114)=3.70, p<.01$)과 충실함에서 나온 거짓행동($F(5, 114)=2.78, p<.05$)에서만 학년 간 유의한 통계적 차이가 있었다. 변명을 위한 거짓행동에서는 6학년 아동들보다 1학년과 3학년 아동들이 이 유형의 거짓행동을 더욱 나쁜 것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체적으로는 저학년들은 변명에 의한 거짓행동이라도 ‘아주 아주 나쁘다’라고 응답한 반면, 고학년에서는 ‘나쁘다’ 정도로 평가하여 학년이 올라갈수록 좀더 관대해지는 경향을 볼 수 있었다. 충실함을 나타내기 위하여나 상투적으로 하는 거짓행동에 대한 아동의 평가는 학년 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Tukey 사후 검증에서는 구체적인 학년 간의 차이가 드러나지 않았다. 그러나 이 유형의 거짓에 대해서는 고학년에서는 거의 ‘좋다’라고 평가하고 있어 충실성에서 나온 거짓이나 상투적인 거짓말은 오히려 좋은 것으로 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유형별로는 유회적인 거짓행동을 가장 관대하게 평가하였으며 이기적인 거짓행동을 가장 나쁘다고 평가하였다.

2) 의도에 따른 거짓행동에 대한 평가

거짓행동에 대한 아동의 평가가 의도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았다(표 6 참조). 전 학년에 걸쳐 아동들은 친사회적 거짓행동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반응($M=2.73, SD=.41$)을 보인 반면, 반사회적인 거짓행동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반응($M=1.41, SD=.37$)을 보였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

의한 차이였다($t=27.14$, $p<.001$ ($df=119$)). 학년간 차이는 친사회적인 거짓행동에서는 나타나지 않고, 반사회적인 거짓행동에서만 유의하였다($F(5, 114)=2.50$, $p<.05$). 그러나 Tukey검증 결과 구체적인 학년 간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표 6> 거짓행동에 대한 아동의 평가(의도별)

학년 \ 의도	친사회	F	반사회	F
1	2.65(.48)		1.33(.31)	
2	2.58(.53)		1.30(.31)	
3	2.78(.35)		1.31(.34)	
4	2.78(.31)	1.15	1.56(.38)	2.50*
5	2.75(.34)		1.36(.37)	
6	2.85(.41)		1.58(.45)	
계	2.73(.41)		1.41(.37)	
t	27.14***			

* $p<.05$, *** $p<.001$

3. 거짓행동에 대한 아동의 허용도

거짓행동에 대한 허용도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해서는 안 된다’, ‘해도 된다’, ‘아주 아주 해도 된다’의 4점 Likert척도로 측정하였으며 아동들의 반응을 표로 제시하면 <표 7>과 같다.

<표 7> 거짓행동에 대한 아동의 허용도(유형별)

학년 \ 유형	1 (SD)	2 (SD)	3 (SD)	4 (SD)	5 (SD)	6 (SD)	계 (SD)	F
유회	3.40 (.60)	3.20 (.62)	3.20 (.41)	2.95 (.39)	2.85 (.49)	2.95 (.39)	3.09 (.52)	3.58**
혼란	2.25 (.72)	2.10 (.85)	2.35 (.67)	2.40 (.60)	2.30 (.57)	2.70 (.47)	2.35 (.67)	1.85
허영	1.20 (.41)	1.40 (.50)	1.45 (.51)	1.65 (.49)	1.25 (.44)	1.75 (.72)	1.45 (.55)	3.46**
보복	1.35 (.59)	1.10 (.31)	1.30 (.47)	1.35 (.49)	1.50 (.51)	1.35 (.49)	1.33 (.49)	1.43
변명	1.25 (.55)	1.45 (.83)	1.35 (.49)	1.65 (.67)	1.45 (.51)	1.85 (.75)	1.50 (.66)	2.27
자기 이익	1.40 (.60)	1.20 (.41)	1.25 (.44)	1.15 (.37)	1.10 (.31)	1.35 (.59)	1.24 (.47)	1.24
충실성	2.25 (.97)	2.05 (.68)	2.40 (.68)	2.60 (.75)	2.65 (.49)	2.85 (.75)	2.47 (.82)	2.70*
계	1.87 (.29)	1.79 (.31)	1.90 (.21)	1.96 (.29)	1.87 (.23)	2.11 (.35)	1.92 (.30)	3.14*

* $p<.05$, ** $p<.01$

위의 표와 같이 거짓행동에 대한 허용도는 2학년이 가장 낮았고($M=1.79$, $SD=.31$), 6학년들의 허용도가 가장 높았으며($M=2.11$, $SD=.35$),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F(5, 114)=3.14$, $p<.05$). 거짓행동의 유형별 분석에서는 유회적인 거짓행동에 대한 허용도가 평균 3.09($SD=.52$)로 가장 높았으며, 이러한 거짓행동은 대체로 ‘해도 된다’는 응답이었다. 그러나 이기적인 거짓행동에 대한 허용도는 평균 1.24($SD=.47$)로서 7가지 유형 중 가장 낮았으며 이 유형의 거짓행동은 대체로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응답이었다.

유형별 거짓행동에 대한 아동의 허용도는 유회적인 거짓행동, 허영에 의한 거짓행동과 충실성에서 나온 거짓행동은 학년간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회적인 거짓행동에 대해서는 다른 유형의 거짓행동과 달리 저학년이 고학년보다 오히려 더 허용적이었으며, 특히 5학년 아동보다 1학년 아동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해도 된다’라고 평가하였다($F(5, 114)=3.58$, $p<.01$). 허영에 의한 거짓행동은 대체로 학년이 올라가면서 점점 더 허

용적으로 평가하였다. 통계적으로는 1, 5학년과 6학년 간의 허용도가 유의있는 차이로 나타났다($F(5, 114)=3.46, p<.01$). 충실함에서 나온 거짓행동이나 상투적인 거짓행동에서는 저학년 아동들보다 고학년 아동들의 허용도가 더 높았으며 2학년과 6학년 간의 허용도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F(5, 114)=3.15, p<.05$).

4. 거짓행동에 대하여 아동이 인지한 부모의 태도

거짓행동에 대하여 아동이 인지한 부모의 태도가 어떠한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만일 아동이 거짓행동을 한 것을 부모님이 아셨다면 어떻게 생각할 것 같은지를 물어보았다. 아동의 응답을 ‘아주 아주 나쁘다’, ‘나쁘다’, ‘괜찮다’, ‘아주 아주 괜찮다’라고 할 것이라고 하여 4점 Likert 척도로 점수화하였으며 분석한 결과는 다음의 <표 8>과 같다.

<표 8> 거짓행동에 대하여 아동이 인지한 부모의 태도

학년	1 (N=17)	2 (N=20)	3 (N=18)	4 (N=20)	5 (N=16)	6 (N=19)	계 (N=110)	
유형	M (SD)	M (SD)	M (SD)	M (SD)	M (SD)	M (SD)	M (SD)	F
유희	3.07 (.62)	2.47 (.87)	3.26 (.45)	3.05 (.51)	2.80 (.62)	3.00 (.73)	2.95 (.68)	3.23**
혼란	2.64 (.63)	2.41 (.87)	2.42 (.77)	2.80 (.41)	2.60 (.50)	2.70 (.66)	2.60 (.65)	1.05
허영	1.64 (.50)	1.29 (.47)	1.42 (.51)	1.65 (.75)	1.45 (.51)	1.70 (.47)	1.53 (.55)	1.57
보복	1.50 (.65)	1.29 (.69)	1.37 (.50)	1.80 (.83)	1.60 (.50)	1.50 (.11)	1.52 (.63)	1.55
변명	1.50 (.65)	1.35 (.49)	1.21 (.42)	1.55 (.51)	1.55 (.51)	1.50 (.51)	1.45 (.52)	1.31
자기 이익	1.57 (.51)	1.18 (.39)	1.42 (.77)	1.55 (.60)	1.15 (.37)	1.30 (.47)	1.35 (.55)	2.02
충실성	2.50 (.76)	2.18 (.88)	2.58 (.61)	2.70 (.80)	2.40 (.75)	2.65 (.59)	2.51 (.74)	1.24
계	2.07 (.35)	1.74 (.26)	1.95 (.29)	2.16 (.35)	1.94 (.22)	2.05 (.31)	1.98 (.32)	4.75**

** $p<.01$

전체 거짓행동에 대해서 아동들이 인지한 부모의

태도는 학년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5, 104)=4.75, p<.01$). 유희적 거짓행동, 혼란에 의한 거짓행동, 충실함에서 나온 거짓행동들은 대체로 부모의 허용도가 높았는데 이는 의도적인 분석에 의하면 친사회적 거짓행동들이다. 그러나 유희적 거짓행동에 대해서만 학년간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F=3.23, p<.01$).

5. 거짓행동에 대한 부모의 태도

1) 자녀의 학년에 따른 거짓행동에 대한 부모의 태도

부모들이 일반적으로 거짓행동에 대하여 어떠한 태도를 보이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만약 자녀가 7가지 유형과 유사한 거짓행동을 한 사실을 알았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를 물어보았다. 부모의 응답을 ‘아주 아주 나쁘다’, ‘나쁘다’, ‘괜찮다’, ‘아주 아주 괜찮다’의 4점 Likert 척도로 점수화하였으며, 부모의 태도는 자녀의 학년에 따라 차이가 없었다. 전체적으로 아동의 거짓행동에 대한 부모의 태도는 평균 2.07($SD=.32$)로서 대체적으로 ‘나쁘다’라고 응답하였다. 각 유형별로도 학년간의 차이는 없었다.

한편, 부모들이 거짓행동의 유형에 따라 어떠한 평가를 하는지를 알아본 결과, 유형별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6, 754)=208.32, p<.001$)(표 9 참조). 부모들은 아동의 유희적인 거짓행동에 대하여 가장 관대하게 여기고 있었으며($M=3.07, SD=.40$), 그 다음으로는 충실함에서 나온 거짓행동이나 상투적인 거짓행동($M=2.85, SD=.47$), 혼란으로 인한 거짓행동($M=2.72, SD=.54$)으로 평균 2.50이 넘어 ‘괜찮다’에 가까웠다. 그러나, 허영적인 거짓행동($M=1.71, SD=.75$), 악의나 보복의 거짓행동($M=1.49, SD=.60$), 변명을 위한 거짓행동($M=1.47, SD=.63$), 자기의 이익을 위한 거짓행동($M=1.19, SD=.46$) 순으로 이들 행동에 대해서는 허용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들은 자녀들이 ‘자기 이

익'을 위한 거짓행동을 행하였을 때에는 평균이 1.19 점으로 거의 '아주 아주 나쁘다'라는 반응을 보임으로 가장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었다.

<표 9> 자녀의 거짓행동에 대한 유형별 부모태도

변량원	Type III 제곱합	df	평균 제 곱	F	Tukey 검정
유형	395.38	6	65.90	208.32***	1>2,3,4,5,6 2>3,4,5,6
오차	238.50	754	.32		3>5,6 4>6
합계	633.88	760			5>6 7>3,4,5,6

*** $p<.001$

2) 의도에 따른 거짓행동에 대한 부모의 태도

자녀의 거짓행동에 대한 부모의 태도가 거짓행동의 의도에 따라 학년 간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본 결과, 전체 부모들은 친사회적인 거짓행동에 대하여는 전반적으로 '괜찮다'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M=2.88$, $SD=.28$). 이에 반해 반사회적인 거짓행동에 대하여는 전반적으로 '나쁘다'는 응답을 하여 대체적으로 부정적인 반응($M=1.46$, $SD=.43$)을 보여 의도에 따라 다른 평가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t=35.64$, $p<.001$ ($df=109$)). 그러나 자녀의 학년에 따라서는 친사회적인 거짓행동과 반사회적인 거짓행동 태도에 대한 부모들의 반응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0> 자녀의 거짓행동에 대한 부모의 태도(의도별)

의도 학년	친사회	F	반사회	F
1	2.96(.21)		1.50(.35)	
2	2.93(.32)		1.57(.45)	
3	2.78(.23)		1.41(.38)	
4	2.84(.28)	.85	1.41(.44)	.41
5	2.87(.30)		1.44(.28)	
6	2.91(.33)		1.43(.60)	
계	2.88(.28)		1.46(.43)	
t		35.64***		

*** $p<.001$

6. 거짓행동에 대한 부모의 경험

부모들이 일상생활에서 얼마나 거짓행동을 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1) 자녀에게 물건을 사 주겠다고 하고 사주지 않은 경험, 2) 벌을 준다고 하고 주지 않은 행동 경험, 3) 전화가 왔는데 자녀에게 지금 부모님 안 계신다고 하라고 한 경험, 4) 자녀와 함께 한 일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말라고 자녀에게 시킨 경험, 5) 자녀와 물건을 산 후 산 것을 다른 식구들에게 말하지 말라고 시킨 경험 등에 관하여 질문을 하였다. 부모들의 거짓행동 경험에 대한 응답을 '전혀 하지 않았다', '거의 하지 않았다', '다소 한 적이 있다', '매우 많이 하였다'로 나누어 4점 척도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 <표 11>와 같다.

부모들의 거짓행동 경험은 평균 2.29($SD=.45$)로 '거의 거짓행동을 하지 않았다'라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경험이 자녀의 학년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 학년에 따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F(5, 104)=4.439$, $p<.01$), 사후검증에 의하면, 특히 4학년 부모들이 다른 학년 부모들보다 거짓행동을 덜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자녀와 함께 한 일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말라고 자녀에게 시킨 경험($F(5, 104)=4.83$, $p<.01$), 자녀와 물건을 산 후 산 것을 다른 식구들에게 말하지 말라고 시킨 경험($F(5, 104)=3.32$, $p<.01$)에서 자녀의 학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표 11> 일상적 거짓행동에 대한 부모의 경험

행동 \ 학년	1 (N=17) M (SD)	2 (N=20) M (SD)	3 (N=18) M (SD)	4 (N=20) M (SD)	5 (N=16) M (SD)	6 (N=19) M (SD)	계 (N=110) M (SD)	F
물건	2.19 (.91)	2.35 (.75)	2.33 (.65)	1.95 (.89)	2.40 (.74)	2.37 (.90)	2.26 (.81)	.84
별	2.69 (.60)	2.80 (.52)	2.78 (.55)	2.65 (.67)	2.93 (.59)	2.72 (.57)	2.76 (.58)	.49
전화	1.88 (.89)	2.35 (.75)	2.39 (.70)	2.00 (.92)	2.67 (.82)	2.47 (.84)	2.29 (.84)	2.22
한일	1.88 (.72)	2.15 (.75)	2.50 (.51)	1.60 (.50)	2.36 (.74)	2.26 (.65)	2.11 (.70)	4.83**
산것	1.93 (.59)	2.25 (.64)	2.44 (.51)	1.68 (.67)	1.93 (.80)	1.89 (.66)	2.03 (.68)	3.32**
계 경험	2.12 (.48)	2.38 (.41)	2.49 (.30)	1.96 (.39)	2.47 (.50)	2.33 (.44)	2.29 (.45)	4.44**

* $p<.05$, ** $p<.01$

7. 거짓행동에 대한 아동의 경험 및 평가와 부모의 경험 및 태도와의 관계

아동의 거짓행동에 대한 경험과 평가, 아동이 인지한 부모의 태도가 부모의 거짓행동 경험 및 부모의 태도와 상관이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Pearson 적률상관 계수를 산출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 <표 12>과 같다.

아동의 거짓행동 경험은 아동 자신의 학년($r=.60$, $p<.01$), 거짓행동에 대한 가치평가($r=.39$, $p<.01$)와 허용도($r=.36$, $p<.01$)와 정적 상관이 있었다. 또한 거짓행동에 대한 아동의 가치평가는 학년($r=.28$, $p<.01$)과 허용도($r=.75$, $p<.01$), 그리고 아동이 인지한 부모의 태도($r=.56$, $p<.01$)와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아동의 거짓행동에 대한 허용도도 학년($r=.26$, $p<.01$), 아동이 인지한 부모의 태도($r=.52$, $p<.01$)와 상관이 있었다. 그러나 부모의 거짓행동에 대한 태도나 경험은 아동의 거짓행동 경험이나 평가 등과 유의한 상관이 나타나지 않았다.

<표 12> 아동의 거짓행동과 부모의 거짓행동과의 상관

	학년	아동 경험	아동 평가	아동 허용도	아동이 인지한 부모태도	부모 태도
학년						
아동경험	.59**					
아동평가	.28**	.39**				
아동허용도	.26**	.36**	.75**			
아동이 인지한 부모태도	.11	.18*	.56**	.52**		
부모태도	-.09	.04	.02	.03	.00	
부모경험	.06	.01	-.10	-.05	-.12	.14

* $p<.05$, ** $p<.01$

8. 아동의 거짓행동 경험에 영향을 주는 요인 분석

아동의 거짓행동 경험과 상관이 있는 변인들인 아동의 학년, 아동의 거짓행동 대한 평가, 거짓행동의 허용도, 아동이 인지한 부모의 태도 등이 아동의 거짓행동 경험을 어느 정도로 설명하고 예언해 주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표 13>와 같다.

아동의 거짓행동에 대한 변인들의 영향을 살펴보면, 아동의 학년과 거짓행동에 대한 평가는 유의미한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거짓행동의 허용도, 아동이 인지한 부모의 태도에서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아동의 학년은 38% 수준에서 거짓행동 경험을 예측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아동의 학년과 거짓행동에 대한 아동의 평가가 함께 아동의 거짓행동을 43% 수준에서 예측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는 아동의 학년이 높아질수록 그리고 거짓행동에 대하여 아동들이 관대한 평가를 할수록 거짓행동을 더

많이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표 13> 아동의 거짓경험, 학년, 평가, 허용도, 아동이 인지한 부모의 태도의 중다회귀분석

독립변인	비표준화 회귀계수 (B)	표준화 회귀계수 (β)	R ² 누적량
단계 1			
학년	1.48	.61***	.38
			$F_{(1, 118)}=70.87^{***}$
단계 2			
학년	1.32	.55***	.43
평가	.50	.24***	
			$F_{(2, 117)}=43.94^{***}$

*** $p < .001$

논 의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과정동안 한국의 아동들이 거짓행동에서 어떠한 변화를 보이며 어떠한 요인들이 아동의 거짓행동 경험과 상관이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120명의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거짓행동에 대한 아동의 경험, 가치평가, 허용도, 아동이 인지한 부모의 태도를 분석하였고 110명의 부모들을 대상으로 자녀의 거짓행동에 대한 태도 그리고 부모 자신의 거짓행동 경험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를 보면, 7가지 유형의 에피소드와 유사한 거짓행동에 대한 아동의 경험은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들에 비하여 고학년의 아동들이 더 많이 하고 있었다. 또한 의도에 따른 아동의 거짓행동 경험에서는 친사회적인 거짓행동과 반사회적인 거짓행동 모두에서 학년이 올라갈수록 더 많이 경험하였으며, 모든 학년의 아동들은 친사회적인 거짓행동보다 반사회적인 거짓행동을 더 적게 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거짓행동이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지만, 한편으로는 초등학교 1학년에서도 이미 19%의 아동들이 거짓행동을 한 경험이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는 Lewis(1997)의 연구에서 어린 아동들도 거짓행동을 하며 친사회적이고 반사회적인 거짓행동 모두를 경험한다고 주장한 것과 유사한 결과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연구인 우남희(2001)의 연구에서는 1학년 아동들이 이미 학교에서 거짓행동을 하고 있다고 하였는데 본 연구의 결과도 이와 유사한 결과로 우리나라의 초등학생들이 상당히 일찍부터 거짓행동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거짓행동에 대한 평가에서 아동들은 대부분 거짓행동을 하면 나쁜 것이라고 평가하였으나 친사회적인 거짓행동 유형은 해도 좋은 것으로 여기고 있었다. 또한 전 학년의 아동들이 친사회적인 거짓행동보다 반사회적인 거짓행동을 나쁜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었다. 한편, 거짓행동의 허용도에서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더 관대해졌으며, 특히, 반사회적 거짓행동에 대해 고학년 아동들이 더 관대하게 평가하고 있었다. 아동들이 반사회적인 거짓행동을 선의의 거짓행동보다 더 부정적인 것으로 평가하였다는 것은 4, 8, 11세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Bussey(1999)의 연구에서 모든 연령의 아동들이 친사회적 거짓행동을 반사회적인 거짓행동보다 긍정적으로 보았다는 연구결과와 같은 결과이다.

또한 전체 아동들은 비록 반사회적인 거짓행동에서는 부정적인 평가를 하였으나 친사회적 거짓행동은 해도 된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Lee와 그의 동료들(1997)의 연구에서 중국 아동들이 친사회적인 의도의 거짓행동에 대하여 캐나다 아동들보다 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였다는 결과와 유사한 결과라고 본다. 즉, 중국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아온 우리나라에서 아동의 가치관이 중국 아동의 가치관과 유사하여 친사회적인 거짓행동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면이 있음을 보여준다고 보겠다.

한편, 본 연구에서 초등학교 1학년 아동들이 친사회적인 거짓행동 보다 반사회적인 거짓행동을 나쁘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은 8세 정도가 되면서부터 아동들이 거짓말을 의도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는 Piaget의 주장보다 더 이른 시기에 한국의 아동들이 의도를 고려하여 행동 판단을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이러한 결과는 5세 아동들도 거짓행동을 평가할 때 의도를 고려할 수 있다는 Peterson 등(1983)의 연구 결과와 유사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7가지 유형에 따른 자녀의 거짓행동 경험에 대한 부모의 태도는 절대적으로 나쁘다고는 하지 않았으며 대체적으로 나쁘다고 하였다. 거짓유형별로 부모의 태도가 가장 관대한 것은 아동의 유희적인 거짓행동이었고, 자기의 이익을 위한 거짓행동은 가장 나쁜 것으로 여기고 있었다. 부모들도 아동들과 마찬가지로 친사회적인 거짓행동을 반사회적인 거짓행동보다 나쁘게 평가하고 있었고, 오히려 친사회적 거짓행동에 대하여는 해도 괜찮은 것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었다. 따라서 Lee 등(1997)이 주장한 것처럼 거짓행동은 사회문화적인 차이에 따라 수용하는 정도가 달라질 것으로 보이며 아동들도 이에 영향을 받아 유사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부모들은 벌을 주지 않을 마음으로 아동에게 벌을 주겠다고 한 적은 다소 있다고 하였으나, 대체적으로는 거짓경험을 거의 하지 않았다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응답은 상당히 신뢰하기 어려운 것이라고 본다. 아동 면담을 통하여 나타난 아동들의 거짓경험은 초등학교 1학년부터도 상당히 많았는데 이에 반해 설문지를 통한 부모들의 거짓경험은 매우 낮기 때문이다. 이 연구를 위하여 초등학교를 방문하여 교장선생님을 만나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였을 때, 그 교장선생님은 부모들의 거짓행동이 상당히 심각한 수준임을 알려주었다. 예를 들면, 아동의 생활환경 조사서에 있는 부모들의 학력은 거의 신뢰할 수가 없을 정도로 허위로 작성되며 가족 사

도 실제와 다른 경우가 매우 많다고 하였다. 이러한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설문지에 의한 부모들의 응답은 상당히 신뢰도가 낮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앞으로 부모들의 보다 진솔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는 설문지가 아니라 직접 면담을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아동의 거짓행동의 경험과 다른 변인들이 어떠한 상관이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는 아동 자신의 거짓행동에 대한 평가, 허용도, 그리고 아동이 인지한 부모의 태도와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부모 자신의 거짓 경험이나 부모 자신이 응답한 자녀의 거짓행동에 대한 태도는 직접 상관이 없었다. 이는 설문지를 통한 부모의 응답 자체가 진실성이 부족하여 제대로의 상관이 나오지 못했다고도 볼 수 있으며, 한편으로는 부모의 가치관이나 부모의 태도 자체보다는 아동이 인지한 부모의 태도와 아동 자신의 평가가 아동의 행동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침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겠다. 따라서 Goodnow(1988)의 주장인 부모의 신념이 자녀의 행동발달에 결정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한 것과 Piaget(1932/1965)의 주장처럼 부모들은 자녀들이 거짓행동을 하였을 때 왜 거짓행동을 해서는 안 되는지를 설명해 주어 아동들이 거짓행동을 해서는 안 되는 인지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본다. 부모들의 행동은 그 자체보다 아동을 통해서 어떻게 인지되어지는가가 중요함으로 부모의 가치관이나 태도가 제대로 자녀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자녀와의 대화의 장도 넓혀야 할 것이다. 특히 아동에게 부모의 태도나 경험이 아동의 행동과 어떠한 연관이 있는지를 분석하기 위하여서는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반드시 부모와의 심층면접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학년이 올라갈수록 거짓행동의 경험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동의 연령 증가로 경험의 누적에서 온 결과라고 볼 수도 있겠으나, 실제 본 연구에서는 거짓행동 유형

에 따라서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오히려 빈도가 낮아지는 거짓행동도 있었으므로 단순히 경험의 누적이라고 볼 수만은 없다. 이는 아동이 사회적 경험이 증가하면서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은 거짓행동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되고 따라서 거짓경험을 하는 것에 대해서도 크게 죄의식을 느끼지 않고 더 많이 하게 되는 것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올바른 가치관이 정립되어야 할 초등학교 시기에 오히려 아동들이 부정적으로 성숙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보다 구체적인 도덕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추후연구에서는 아동의 거짓행동을 증가시키는 변인을 보다 다양하게 분석하고 좀 더 포괄적인 시각에서 조사하여 거짓행동이 만연한 사회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강봉희 (1999). 초등학교 아동의 거짓말 행동과 자아존중감과의 관계. 울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권향숙 (1989). 아동의 거짓말 판단과 어머니의 언어통제 방식과의 관계. 서울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경희 (1999). 아동과 청소년의 사회적 도덕성에 관한 연구: 정직과 친절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12(1), 14-24.

김경희 (2000). 청소년의 사회적 도덕성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13(1), 81-93.

김경희 (2000). N세대의 새로운 행동 패러다임: 청소년의 사회성, 도덕성을 중심으로; 아동과 청소년의 사회적 거짓말.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13(3), 43-60.

김동복 (1991). 국민학교 아동의 거짓말에 관한 일 연구. 원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신옥 (1987). 아동의 거짓말 개념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희주 (1988). 어린이의 거짓말 이해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동아일보 (2003. 12. 28). 횡설수설. 거짓말 천국. 배금자.

동아일보 (2004. 3. 25). 개인신용불량자 사상 첫 380만명 돌파. 박중현.

우남희 (2001). 한국 아동의 거짓행동에 관한 연구 I: 거짓말과 부정행위에 대한 경험 및 평가. 아동권리연구, 5(2), 97-111.

연합뉴스 (2002. 8. 6.). 위증사범 작년보다 85.5% 급증.

이은정, 우남희 (2002). 한국 아동의 거짓행동에 관한 연구 II: 거짓행동의 유형별 경험과 허용도 분석. 아동권리연구, 6(1), 191-209.

이근옥 (2000). 거짓말과 참말에 대한 아동들의 판단 능력 발달. 국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조은경 (2002). 거짓말의 특징과 탐지.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21(2), 33-65.

차주환 (1998). 공자. 서울: 숲.

한국일보 (2003. 1. 21). 미대학원 진학시험서 한국인 부정행위.

Buller, D. B., Comstock, J., Aune, R. K. & Strzyzewski, K. D. (1989). The effect of probing on deceivers and truth-tellers. *Journal of Nonverbal Behavior*, 13, 155-170.

Bussey, K. (1992). Lying and truthfulness: Children's definitions, standards, and evaluative reactions. *Child Development*, 63, 129-137.

Bussey, K. (1999). Children's categorization and evaluation of different types of lies and truths. *Child Development*, 70, 1388-1347.

Bussey, K. (2000). Moral understanding. In Lee, K.(Eds.). *Childhood cognitive development*:

- essential reading(pp. 307-322). Cambridge, massachusetts: Blackwell Publishers Ltd.
- Ekman, P. (1985). *Telling lies*. New York, W. W. Norton and Company, Inc.
- Ekman, P. (1989). *Why kids lie: how parents can encourage truthfulness*. New York: Scribner.
- Goodnow, J. J. (1988). Parents' ideas, actions, and feelings: Models and methods from developmental and social psychology. *Child Development*, 59, 289-320.
- Lee, K., Cameron, C. A., Xu, F., Fu, G., & Board, J. (1997). Chinese and Canadian children's evaluations of lying and truth telling: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in the context of pro- and antisocial behaviors. *Child Development*, 68, 924-934.
- Lewis, M. (1993). The development of deception. In M. Lewis & C. Saarni(Eds.), *Lying and deception in every day life*(pp. 90-105). New York: Guilford Press.
- Morgan, J. J. B. (1937). *The psychology of the unadjusted school child*. New York: The MacMillan company.
- Peterson, C. C. (1995). The role of perceived intention to deceive in children's and adults' concepts of lying. *British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13, 237-260.
- Peterson, C. C., Peterson, J. L., & Seeto, D. (1983). Developmental changes in ideas about lying. *Child Development*, 54, 1529-1535.
- Piaget, J. (1965). *The moral judgement of the child*. New York: MacMillan company.(original work published 1932)
- Saxe, L. (1991). Lying: Thoughts of an applied social psychologist. *American Psychologist*, 46, 409-415.
- Schaffer, R. H. (1996). *Social development*. Cambridge, massachusetts: Blackwell Publishers Ltd.
- Stricharts, A. F. & Burton, R. V. (1990). Lies and truth: A study of the development of the concept. *Child Development*, 61, 221-220.
- Stricharz, R. A. & Borton, R. V. (1990). Lies and truth: a study of th development of the concept. *Child Development*, 61, 211-220.
- Sweeter, E. E. (1987). The definition of lie: An examination of the folk models underlying a semantic prototype. In D. Holand & N. Quinn (Eds.), *Cultural models in language and thought*(pp.43-66).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Wimmer, H., Gruber, S., & Perner, J. (1984). Young children's conception of lying: lexical realism moral subjectivism. *Journal of Experimental Child Psychology*, 37, 1-30.

An analysis of deceiving behavior of Korean elementary school children and their parents

Nam-Hee Woo Eun-Jung Lee

Dept. of Child Development & Education, Dongduk Women's University

This study investigated the children's deceiving behaviors in relation to those of their parents. The subjects were one hundred and twenty children and their parents. Twenty children for each grade were chosen from one elementary school in Seoul. Pictures of seven episodes of deceiving behavior and a check list were provided to facilitate the interview with each child and a questionnaire was provided for the parents. Children were asked whether they had deceiving experience similar to the episode, how did they evaluate of the experience, and what did they think of their parental attitudes towards their deceiving behaviors. One hundred twenty interviews of the children and one hundred ten parental questionnaire were analyzed.

The results were as follows: The children had more experience and were more permissive to the deceiving behaviors as their grades increased. All the children had more experience with prosocial deceiving behaviors than antisocial behaviors. The children's own evaluation of their deceiving behavior and their parental attitudes which they recognized had relation with children's deceiving experience. Whereas, no relation was found with their parents' deceiving experience or parental attitudes of their children's deceiving behaviors.

Keywords: deceiving behavior, lie, antisocial behavior